

우수교
프로그램

가치창출을 위한 상생 산학협력의 시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지훈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LINC사업단

산학협력 선도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하 산기대)는 지난 1997년 지식경제부가 출연해 시흥·안산 스마트 허브의 중심에 설립한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이다. 각종 대학평가, 취업률, 국제화, 연구비 수주 실적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올해 일반대학 전환을 계기로 최근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3년 연속(2010년~2012년) 취업률 전국 1위를 이어오고 있는 취업 명문대학이다.

이처럼 산학협력의 모범답안으로 꼽히는 산기대는 이번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성하였다. 산기대는 상생 기반 산학협력 체제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 선도대약으로 도약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선진 산학협력을 추진하여 4,000개의 가족회사와 상생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LINC사업의 수행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산학협력 체제를 지속가능한 개방형 산학협력 체제로 강화하고(SYSTEM), 지역산업 기반의 특성화 및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며(COMPONENT), 산학협력 연계체제의 구축과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상시 대

학-기업의 교류체제를 강화(LINK)하고자 함이다. 이와 같이 산기대는 산학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 학생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실현하여, 4,000여 개의 가족회사와 산학교류와 대학의 취업률을 85% 이상 달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학체제, 교육역량, 기업연계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 밀집지역인 수도권 서남부 산업단지와의 상생 기반 산학협력 체제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선도대학을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산업 연계에 있어 대학이 위치한 시화·반월·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직접 지원하고 산학협력연계센터를 활용하여 부천, G밸리, 서초 지역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KPU LINC Program>

지속가능한 개방형 산학협력 체제구축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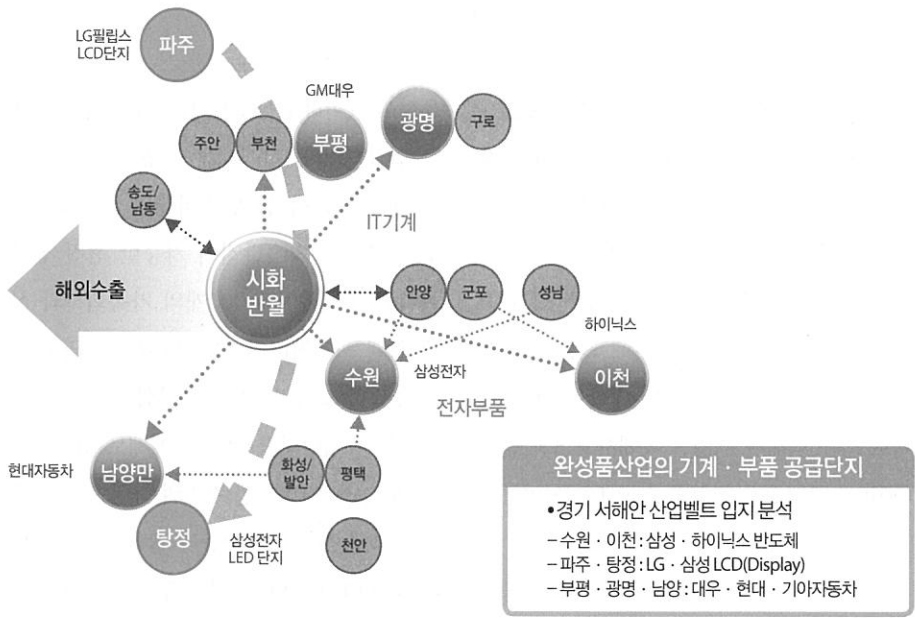
-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 산학협력단 역할 재정립 및 역량강화
- 창업교육센터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지역산업 기반 특성화 및 맞춤형 인력양성 COMPONENT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인력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 특성화 분야

상시 산학협력 연계체제 구축 및 기업지원 강화 LINK

- 연계체제 구축 및 운영
- 기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그림 1_ 시화·반월 광역경제권 내 시장 연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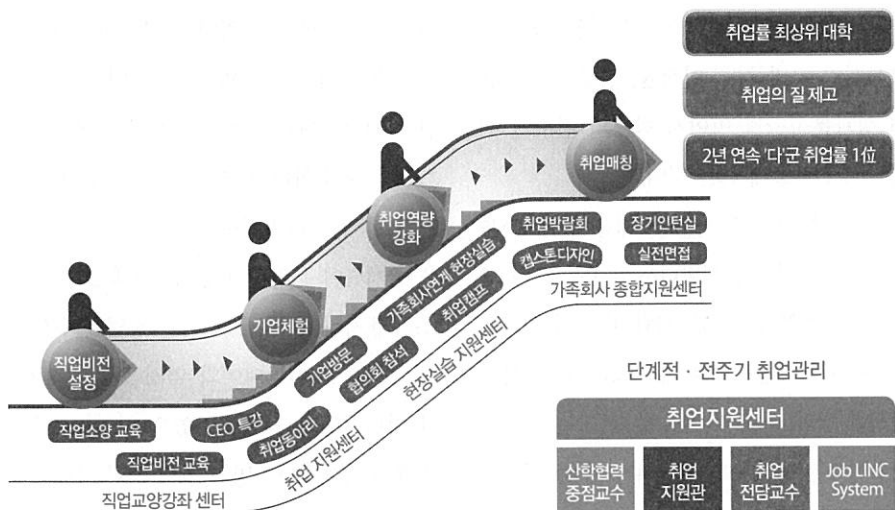
지역주력산업 및 대학 역량분석을 통한 특성화분야 선정

산기대는 4,000여 개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분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 주력산업과 밀접한 학과로 특성화학과를 선정하고, 다양한 산학협력 친화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목적지향형 수요 발굴을 통해 특성화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를 중점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전략을 통해 IT기계 및 고부가 전자부품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가족회사종합지원센터 및 AISET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특성화 분야 기업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산기대는 LINC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기반 특성화 교육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재교육 시간 및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인재양성과 가족회사 제도 기반의 산학연계 접점을 강화하여 학생과 중소기업 교류 및 이해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졸업생 취업을 추진하고 있다.

Job Escalator System을 통한 전주기 단계별 취업지원

산기대의 우수한 취업률은 산기대만의 특별한 취업지원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하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Job



[그림 2 _ Job Escalator System]

Escalator System이 바로 산기대만의 단계별 취업지원 체제이다. 교수 및 기업 관계자를 통한 상담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현장체험, 교수·기업·학생이 하나의 공간에서 연구개발 및 교육이 가능한 엔지니어링하우스를 통해 현장실무교육, 졸업 필수교과인 기업 연계형 캡스톤디자인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상품화 작품 제작까지, 취업을 위한 전 과정에 걸친 교육이 동반되는 것이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급변하는 채용시장을 분석해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가족회사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구인 가능한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취업을 관리·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와 기업의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가족회사종합지원센터가 연계되는 취업매칭시스템(Job-LINC)이 실현된다. 이러한 취업매칭시스템은 취업성공률을 향상시키고 만족도, 이직률, 전공일치도 등의 성과분석까지 이어져 학생의 전주기 취업관리가 가능케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마음에 쏙 드는 인재를 선발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취업정보업체 ‘사람인’이 최근 기업체 인사담당자 3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때 마음에 쏙 드는 인재를 선발했다는 응답자는 평균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이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인재를 채용한 경험은 84.1%로 매

우 높게 조사됐다. 가장 큰 이유로 인원충원이 급해서(58.2%),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없어 결국 채용 포기하는 사례(71.7%)도 적지 않았다. 이는 산학불일치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산기대는 이러한 산학협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취업지원시스템을 산학협력 및 교육과 접목시켜 Job Escalator System을 추진하고, 결국 신공학교육의 실현을 만들어내어 많은 정부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반 창업 트랙

국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 또한 산기대의 특징이다. 청년 실업률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년 창업 열풍이 부는 최근 동향과 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에 따라 산기대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의 창업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과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기 위한 엔지니어링하우스 기반 창업 트랙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 2011년도에는 엔지니어링하우스 기반 창업트랙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12명의 청년사업가를 배출하였으며, LINC사업을 통해 매년 20여 명 이상의 청년 사업가를 발굴 육성하여 창업지원 및 교육 등 창업 활성화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그림 3 _ 단계별 학생창업 지원체계]

엔지니어링하우스¹⁾ 기반 창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은 관련 엔지니어링하우스에서 교수와 기업연구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며, EH교과 및 기업 연계교육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열린 EH를 통해 창업 준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이 지원된다. 이를 통하여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창업 이후 가족회사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중기사랑지원단을 통해 기술 및 경영 컨설팅 등의 모니터링을 받아 창업 성공에 한걸음 더 가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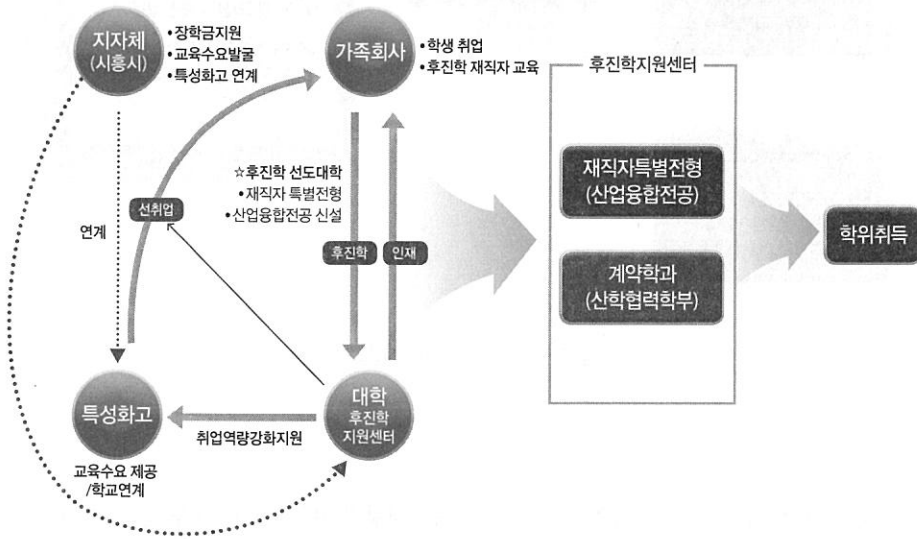
선취업·후진학 평생교육시스템 구현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LINC사업만이 아니다. 산기대는 LINC사업과 더불어 LINC사업 51개 선정 대학 가운데 10개 대학을

¹⁾ 기업의 신상품 개발과 실용적 교육을 혼합한 산학협력 시스템으로 교수, 기업, 학생이 하나의 공간에서 교육,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을 24시간 공동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산학협력 모델

선정하는 ‘후진학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되며, 총 1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후진학선도대학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학과개설, 교육과정 개선 등 선취업-후진학 지원 강화를 위한 후진학 선도대학을 선정하고,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림 4_ 후진학 선도대학-평생교육 시스템]

산기대가 위치한 시화·반월 산업단지는 산업변화에 따라 고숙련 산업기술인력 수급이 요구되나 산업의 글로벌화, 지식기반화가 가속됨에 따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수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산기대는 후진학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취업역량강화 → 취업 →

진학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취업·후진학 지원체제를 운영하여, IT 기계 및 고부가 전자부품 분야의 지역산업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의 산업기술융합전공을 신설하였다. 또한 후진학지원센터 기반의 선취업·후진학 관련 산학협력학부, 가족

회사종합지원센터, 지자체, 기업 및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구성되는 종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진학 재직자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선취업·후진학의 재직자 평생프로그램을 구현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성과확산 사례>

산학협력 프로그램 성과 확산

산기대는 LINC사업에서 도출되는 사업성과를 단순히 성과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타 대학의 모범적인 산학협력 대학체제의 구축으로 성과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실제 가족회사, 엔지니어링하우스 시스템 등 대표적인 산학협력 체제를 희망하는 대학으로 구축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타 대학 및 기관으로 성과를 전수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가족회사 제도,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엔지니어링하우스 등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및 홍보, 매뉴얼화 등을 통한 전국적인 파급·확산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LINC사업의 수행성과 및 정책적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기업기반 학습의 새로운 산학협력 교육시스템인 엔지니어링하우스 교육을 통한 지역기업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 모델은 LINC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산학협력 대표대학으로의 발걸음

1997년에 개교된 산기대의 역사는 길지 않다. 하지만 짧은 역사에 비해 산학협력의 성과는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미 산기대하면 떠오르는 것이 산학협력이다. 가족회사 제도 도입, 5년 연속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창업선도 및 산학융합 조성사업 선정 등 지속적인 산학협력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교내 산학협력 인프라인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완공, 산학융합지구의 산업단지 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완공 등의 대표적인 성과들은 산기대가 산학협력 특성화 성공 모델로서의 위상을 증명하고 있다.

산기대는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을 졸업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전 학생이 산학협력 기반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가족회사, 중기사랑지원

단, AISET 프로그램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의 빛을 보고 있다. 산기대는 산학협력 대표대학이라는 자부심과 대학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성화 방향을 산학협력 기반 인재양성에 맞추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LINC사업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를 가속시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된다.